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이리공고 마이스터고 지정 총력

전북자치도교육청·전북자치도·익산시 등 협약 체결 서거석 교육감 “지역사회와 함께 지정 동의 이끌어 낼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이리공업고등학교(교장 김주영)의 이차전지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급 288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계획이

다. 이를 위해 배터리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졸업생 전원 취업을 위해 동원시스템즈, 에너이버배터리솔루션, 천보BLS, 군산대학교, 에코융합섬유연구원 등 60여개 관계 기

관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라 이차전지 분야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면서 “익산시는 이리공업고등학교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이차전지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낼 때가 왔다. 이리 공고의 마이스터고 지정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기업 수요 맞춤형 인력 양성 등 기대효과가 클 것이다.”며, “마이스터고 지정을 위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가칭)국제배터리 마이스터고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 단지를 이끌어 갈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전북교육청은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교육부의 마이스터고 지정 동의를 반드시 이끌어 내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지난날 31일 도교육청 회의실에서 정현을 익산시장, 김주영 이리공업고 교장, 이규택 (재)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최중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 등과 이리공업고 이차전지 마이스터고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저출생 극복,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 정책브리프

맞춤형 균형모델 다각화·성평등 실현 방향 수립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 4가지 정책 방향 제시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정책브리프(2호)를 통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생활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

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전북은 소규모 사업체가 많아 일-생활 균형 정책 도입 및 활성화에 한계가 있고, 육아 휴직 이용은 주로 여성이 사용하고 있다.

또한 타 지역보다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비율이 높고,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0.06%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이에 전북 도민들의 일-생활 균형 제고를 위해서는 일터와 삶터의 성평등 실현이 중요하다는 점을 견지하면서, 4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는 맞춤형 일-생활 균형 모델 다각화다. 소규모 사업장, 농업 및 제조업 분야, 식품산업 분야 등 지역의 사업체 특성과 가족 다양성을 고려한 일-생활 균형 모델 개발이다.

두 번째로는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수립이다.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남성양육자 시간지원 확보 및 시간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남성양육자 특화 돌봄인프라 확대 등이다.

세 번째로는 가족친화인증기업 및 인센티브 확대다. 홍보 및 마케팅 지원, 공모사업 지원 가점, 세제 혜택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네 번째로는 일-생활 균형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조막래 박사는 “일상에서 일하는 모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생활 균형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지역의 노동시장 특성을 이해하고, 정책 대상의 수요를 촘촘히 파악해 맞춤형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남성의 돌봄참여를 지원하고 기업의 가족친화문화 조성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군산 ‘술익는 마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모 선정

전북자치도는 지난날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4년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공모에 군산시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특별교부세 12억원 확보... 청년 주거공간 확보 등 확장성 기대

군산시는 2022년 청년 마을로 선정된 ‘술익는 마을’(대표 조권을)과 협력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해들 청춘 하우스’를 제안했다. 이 사업은 해돋이공원 일원 사유지에 총사업비 20억원(특별교부세 12억원, 도비 2.4억원, 시비 5.6억원)을 투입해 숙소,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등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계획 수립부터 설계, 운영까지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마을로 유입된 청년들의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청년 마을 프로그램과 연계해 새로운 지속성과 확장성을 기대하고 있다.

노홍석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함께 머무르고 공유하는 혁신 공간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지역 내 청년 인구 유입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년들의 새로운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산 ‘술익는 마을’은 지역 양조 역사를 기반으로 ‘군산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교육과 함께 군산을 알리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흑화양조를 설립해 군산 쌀과 농산물을 활용한 증류주를 생산하고, 술지게미를 활용한 화장품·관광상품 개발 등 다양한 파생산업을 육성하며, 침체된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북자치도, 여름 휴가철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31일까지... 변산·선유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 150곳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서기간인 31일까지 변산, 선유도 해수욕장 등 도내 주요 피서지 150개소를 대상으로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도내 피서지와 관광객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빈틈없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생활쓰레기 등을 신속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대책으로는 △피서지별 청소 인력 및 장비확충 등 청소 체계 운영 △생물·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함 확대 설치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확

대 설치 등이다.

또한, 쓰레기 무단투기·소각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도·단속반 운영 및 홍보활동에 나서고, 신속한 쓰레기 처리와 민원 대응을 위해 시군별 ‘기동 청소반’과 ‘상환반’도 운영할 방침이다.

강해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산림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를 찾는 피서객에게 천혜의 자연환경과 함께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어 다시 찾고 싶은 전북특별자치도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